

무형유산만의 독특한 美, 온라인 영상으로 부담없이

올해 7회를 맞는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술, 씬'을 주제로 무형유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현장감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무관객 온라인 영화제로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인 판소리 뮤지컬 영화 '소리꾼'을 시작으로 총 16개국 26편의 영화들이 ▲헤리티지스트림 ▲이프로커스 ▲마스터즈아리랑 ▲이프로퀵 ▲이프로VR ▲특별상영 등 6개 부문으로 관객들에게 소개된다. 특히 폐막작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침묵: 리스본의 소리'다. 개막식은 11일 오후 8시, 폐막식은 13일 오후 5시에 네이버TV에서 방영된다.

'헤리티지스트림' 부문은 전 세계 다양한 무형유산을 다룬 영화를 선정, 전문해설을 곁들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11일부터 3일간 무관객 진행

16개국 26편 영화들 소개

개·폐막식 네이버TV서 방영

재즈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허비 행곡: 무한한 가능성' 상영 후 '스위스몽트뢰제즈 페스티벌의 기록유산과 음악리코딩'에 관한 해설 영상이 이어진다.

폐막작인 '침묵: 리스본의 소리' 상영 전에는 포르투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파두'(포르투갈의 전통 음악·공연)에 관한 전문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전 '이프로커스' 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상을 반영, '술과 생명, 치유와 씬'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이 중 '의사의 땅, 칼리와의 비밀'은 무



영화 '무녀도' 스틸 컷.

형유산의 전승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로, 안데스의 칼리와의 부족의 오랜 의하지식과 전승 체계를 면밀히 담고 있다. 오늘날의 문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되짚는다. 또한 안데스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전설을 다룬 '안데스의 노래'도 만나볼 수 있다.

'마스터즈아리랑' 부문에서는 국내 필름 디

래스와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프로퀵' 부문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기획 제작 콘텐츠 '씨름, 분단을 넘어 세계를 잇다'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록 영상 신작으로 인도네시아의 전통악기 '가를란'과 전통춤을 다룬 '타리 발리', 베트남 타이족의 전통 의식 '킨광판 축제'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또 무형유산과 문화 소재의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운수 좋은 날', '소나기', '썰매꽃', '안녕' 등도 소개된다.

'이프로VR' 부문에서는 무형유산과 VR(가상 현실)을 접목해 '행인검객 심학규', '붉은 바람' 등을 선보인다. 또한 2020년 EBS국제다큐영화제의 '다큐 속 무형유산' 부문을 빛낸 '기생, 꽃의 고백', '아네르가, 생명의 숨결' 등 두 편을 특별상영작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4년부터 매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개최해 왔다. 영상이라는 친근한 매체로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무형유산을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뉴스시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재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2020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을 재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재단은 '2020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을 지난 3월 공모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했다가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국제 교류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사업은 잠재력 있는 도내 예술가들에게 해외 교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역량 강화와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2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16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s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재단 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전북 소재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예술 분야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며,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국제 교류 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참가, 온라인 스트리밍 국제 교류 공연, 화상 세미나 및 포럼 등 비대면 방식의 국제 교류 목적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에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은 변경된 사업 내용을 확인 후 다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내가 그대를 떠올리면'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정읍 서영여고 안승언 '대상'

제2회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에서 정읍 서영여고 안승언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무주군은 무주출신 김환태 문학평론가의 문학작업적 기리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환태 문학상 공모전 심사 결과 '내가 그대를 떠올리면(시)' 작품을 낸 안승언 학생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상은 전주성심여고에 재학중인 황혜리 학생 '단 하룻날의 무주(수필)'와 세종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현민 학생의 '정체모를 그 여인(시)'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군은 모두 60건의 출품작 가운데 심사를 통해 은상 4명, 동상 5명, 가작 10명을 각 각 선정했다.

작품 접수결과 고등학생이 28건의 작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은 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위원((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추천)들이 주제의 적합성과 표현의 참신성, 작품의 완성도와 맞춤법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상식을 생략하고 수상자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우편 및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행지의 인상 '한권의 책 속으로'

전북대 정석권 교수 '소소풍경' 펴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작가마당에

연재된 내용 중 70여편 글 등 수록

전북대학교 정석권 교수(영어영문학과)가 일상과 여행의 인상을 기록한 책 '정석권의 소소풍경' (한빛문화)을 펴냈다.

한겨레 월간 사진마을(http://photovill.hani.co.kr) 작가마당에서 '정석권의 소소풍경'을 연재하고 있는 정 교수는 그의 글과 사진으로 만든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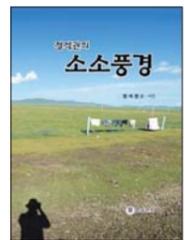
이 책에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작가마당에 연재된 내용 중 70여 편의 글과 350여 장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이 중 일부는 2017년 한겨레 사진마을 단체전으로 서울 충무로의 '갤러리 꽃피다'에서 전시된 것이며, 또 일부는 2019년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프로그램인 사진 아카데미에서 작업한 사진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사진과 글을 통해 일상의 모습들이나 여행지에서의 인상을 기록해 왔다.

주로 풍경을 촬영하지만 그 풍경 속 사람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사진에 관심이 많으며, 길에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과 인상을 전달하고자 했다.

'소소풍경'은 터키,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와 제주도, 섬진강 등 한국의 명소, 그리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소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와 제주도, 섬진강 등 한국의 명소, 그리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소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와 제주도, 섬진강 등 한국의 명소, 그리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소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와 제주도, 섬진강 등 한국의 명소, 그리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소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와 제주도, 섬진강 등 한국의 명소, 그리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소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와 제주도, 섬진강 등 한국의 명소, 그리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소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익산시, 도내 유일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익산시의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전북도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지역예술인, 생활문화예술동호인과 협업해 지역의 주요 공간에서 다섯 가지 주제로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익산을 거닐다'를 주제로 응모해 사업에 선정됐다.

다섯 가지 주제는 익산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감상회 '산책음악감', 익산문화예술거리에서 펼쳐지는 서커

스축제 '유랑극장', 익산교도소세트장 감방에서 보내는 청춘들의 하루인 '감방살롱',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즐기는 전시와 북콘서트 '푸른빛밤', 캠퍼스가 된 미륵사지 석탑 '달빛유회'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륵사지, 익산교도소세트장 등 지역 관광명소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입혀 익산이 보다 매력적인 곳임을 소개하고 일상 속에서 관광객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림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Real Fresh

참프레 CHARMFRE

동물복지 닭고기

"가족의 건강에 답하다"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